

제 80 호

삼위 일체 대축일  
(강림 후 1)

1974. 6. 9.

# 숲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함승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②3498)

### [논설]

## 삼위일체와 공동체

김재덕 주교



“동일한 신성(神性)을 지니면서 성부·성자·성신의 세 위격으로 구별되는 하나이신 하느님”, 이것이 곧 삼위일체의 현의(玄義)이다.

이 현의는 어떤 신학자의 창안이 아니다. 직접 하느님으로부터의 계시 진리로서 절대자이신 신의 내적 생명의 표현이며, 또한 우리 인간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 내용이다.

그러나 이 신비는 인간의 지력을 훨씬 초월한다. 성 아우구스티노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하느님을 하나의 인격자로 전제하고, 마치 인간에게 있어서 지(知)·정(情)의(意), 이 세가지가 한 인격을 이루듯이, 하느님에게 있어서도 성부·성자·성신이 하나의 신적 실체(神의實體)를 이룬다고 풀이해 보았다. 그러나 역시 신의 깊은 본질에 관한 것이기에 인간의 지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는 계시된 한도에서, 성부의 능력으로 창조되고, 성자의 피로써 구원되며, 성신의 은총으로 성화됨을 비로소 알게 된다. 이러한 성삼과의 밀접한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영광과 찬미를 드리게 하고, 그의 이름은 우리의 생활을 풍요하게 해준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스스로가 공동체이시다. 하느님은 당신 스스로를 공동체로서 나타내 보이도록 만물을 창조 하셨다. 하느님은 당신 스스로를 공동체 안에서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느님의 보편적 계획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느님 자신을 최고로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이 위대한 삼위일체의 공동체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를 우리는 십자가의 표시로 고백하며 생활로써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종교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도 실상은 영원한 삼위일체의 모습을 따라, 하나인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다. 그것은 하느님의 빛나는 이미지로서 하느님은 영원히 하나인 3위의 공동체이시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인류를 구원함에 있어 역시 공동체로서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도 실상은 이를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성신과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성자를 통하여 행해지는 성부의 고마우신 업적이다. “하느님은 사람들을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성화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 의해 하느님을 인정하고 그를 성스럽게 섬기려는 한 백성으로서 이루고자 하셨다.”(교회현장 제2장 9항).

이렇게 우리들의 신조(信條)는 삼위일체의 신조이며 (2면으로 계속)

### \* 이주일의 미사 \*

#### (1)개회식

□**입당송** 천주 성부와 독생 성자와 성신은 찬미 받으소서. 정녕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나이다.

#### (2)말씀의 진례

□**제 1독서**(잠언 8 : 22-31, 경향잡지 6월호 P. 24)  
땅이 생기기 전에 지혜는 이미 잉태되어 계셨다.

□**찬가송** ◎ 하느님 내 주시여,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이 이리 묘하시고.

우러러 당신 손가락이 만드신 저 하늘하며, 굳건히 기록하신 달과 별들을 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아니 잊으시나이까. 그 종락 무엇이기에 따뭇이 돌보시나이까

□**제 2독서**(로마서 5 : 1-5, 성서 P. 345)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신이 부어 주신 사랑으로 하느님께 가게 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신께 영광 있으소서. ◎

□**복음**(요한 16 : 12-15, 성서 P. 248)

아버지의 것은 무엇이냐 다 내 것이고, 성신은 내게서 받은 것을 전하시리라.

#### □신자들의 기도

1. 성삼위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일치하시는 주여, 우리들 가정에 사랑과 일치를 심어주소서. ◎주여, .....
2. 성삼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여, 우리 본당 공동체에도 사랑이 충만하여 이해와 단결로 굳게 뭉치게 하소서. ◎

3. 일치의 근원이신 주여, 이 6월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바친 장한 이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도모게 하소서. ◎

+ 주여 비오니, 우리 모두 서로 화해하여 일치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아멘.....

#### (3)성찬의 진례

성찬식. 봉헌.

□**영성체송**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느님이 너희 마음 속에 당신 아들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을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도다.

### \* 숲정이 산책 \*



우물안 개구리는 알 수 없습니다.

## (2) 순 정 이

(1면에서 계속)

또한 공동체의 신조이다. 세계의 베르소나가 영원히 하나로 존재하듯, 수많은 우리들도 하나인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삶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종교를 단순히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아니면 나의 영혼과 육신과의 관계 정도로 생각하고 수직적인 세로의 것으로만 착각한다.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은 가끔 이웃과의 가로 관계를 잊어버리고 이기주의적이요 개인주의적인 때가 많다. 이것은 분명 신앙의 반신 불수이다.

사랑의 계명은 "주님이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루가10, 27)하였다.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에까지 미쳐야 한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백성임을 자랑한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확실히 공동체 의식이 희박하며, 따라서 약하고 고립되어 있음을 자인 한다.

한편 현대세계는 오히려 신부재(神不在)의 강한 공동체로서 무서운 위세를 떨치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세상을 구함에 있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더욱 높이 현양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공동체를 굳게 이룩해야만 하겠다. 여기에는 성직자든 수도자, 평신자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 백성의 양심을 되찾고 자기와 하느님만을 위한 뿐 아니라, 남을 위해서까지 항상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고 목적하는 삼위일체적인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다. (전주 교구 교구장)

### 【격려사】

## 제4지구 단합 체육대회에 부쳐

김 종 택 부주교

스포츠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로의 친목과 단결에 큰 힘을 줍니다.

금년에 가지는 이 체육대회는 특히 화해의 성년을 더욱 뜻있게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교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백성의 한 가족으로 우애와 평화에 넘치는 하루를 지내십시오. 1974년 6월 9일

### \* 경기 시간표

10:00-10:30	개회식
10:30-12:30	축구(예선 및 준결승)
10:40-12:30	배구
11:00-12:30	100m
12:30-13:00	사람 찾기(여자)
13:30-15:00	배구
14:00-14:30	축구(결승)
14:40-15:20	공물리기(성직자 및 사도회 임원)
15:20-16:20	줄다리기
16:00-16:30	400m 계주
16:30-17:00	폐회식

### \* 경기 대진 및 주관 임원

1. 축구 (주관 이덕남, 보조 유대회)
  - ① 덕진:복자                      ② 노송:중앙
  - ③ 전동:①승자                    ④ 서학:②승자
  - ⑤ 결승(③승자:④승자)
2. 남자 배구 (주관 박장춘, 보조 조성희)
  - ① 덕진:중앙                      ② 서학:전동
  - ③ 노송:①승자                    ④ 복자:②승자
  - ⑤ 결승(③승자:④승자)
3. 여자 배구 (주관 박장춘, 보조 조성희)
  - ① 노송:복자                      ② 전동:중앙
  - ③ 서학:①승자                    ④ 덕진:②승자
  - ⑤ 결승(③승자:④승자)
4. 줄다리기 (주관 유대회, 보조 임한전)
  - ① 서학:전동                      ② 노송:복자
  - ③ 중앙:①승자                    ④ 덕진:②승자
  - ⑤ 결 승 (③승자:④승자)
5. 육상 (주관 임한전, 보조 최석호)
6. 사람찾기 (주관 임한전, 보조 이철중)
7. 공물리기 (주관 임한전, 보조 이철중)

### \* 임 원

제 4지구장 신부 김영일, 지도신부 김종택  
 대회장...조성호, 위원장...송정원  
 경기 및 진행...임한전, 시설...유대회  
 심판...이덕남, 섭외...이영희, 기록:조성희  
 ◎소청위원:대회장 및 사회 분과위원 전원

###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통  
 (전화 ④4577)

### \* 교행 여러분의 집 \*

## 스타 사진관

장남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④ 6094

### ☆ 추억의 집 ☆

## 푸른 사진관

이준영(모세)

○ 전동, 성모병원 건너편  
 전화 ④ 6059

「신 간」



「효 도」

최신자(말가리다)

늘 집에서만 목욕을 해 오다가 요즘에 대중탕을 두어번 가보고는 꽤 재미있는 일

을 보았다. 때 밀어주는 사람을 본 것이다. 전에는 그저 싸우나니 독탕이니 하는데서 때를 밀어주며... 하는 이야기를 간간히 들어 왔지만 대중탕에까지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었다.

그보다도, 어느 나이 많으신 할머니의 때를 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더니, 그 할머니의 딸이 목욕탕에 모시고와서 때밀기는 남에게 맡긴 모양이었다.

어렸을 적에, 연로하여 눈이 어두우셨던 외할머니가 늘 나의 어머니께 목욕시켜 주시기를 원하셨고, 더구나 여름철이면 거의 날마다 목욕시켜 드리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요즘에는 노후에 외로워진 노인들의 모습이 매스컴에 자주 보도 되고 있어 이미 부모를 여의었거나 아직 모시고 있는 모든이들에게 한번씩 더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다.

자식과 손자들을 두고도 너무 외로워서 자살한 노부모가 있고, 훌륭한 저택의 양육이 중에서 날마다 창밖을 내다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한복차림의 외로운 노인들 그런 글을 읽은 적도 있다.

그렇다면 딸에게서 손수 때를 밀어 받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딸과 더불어 목욕하러 올 수 있었던 그 할머니는 그래도 조금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이를 먹어 늙어졌을 때는 그 정도의 효도마저 받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심히 하였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르는데 온갖 희생을 다 하였던 것과 비례하여 전래의 「효」는 자식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부모를 받드는 것이 마땅한 일 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과도기를 지나며 「효」라는 개념도 바뀌어져 가고 있으며 자식과 부모가 서로 자신들의 생활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상태에서 좀더 건전한 개념이 자리 잡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자식을 기르는 부모도 부모 자신의 생활을 충실히 누리며 희생 일변도가 아닌 사랑과 이해의 보살핌으로 기르며, 그렇게 기른 자식이 자라고 부모가 늙었을 때 부모로부터 자립하여 자신의 생활을 충실히 하고, 부모에게도 조그마한 관심을 보여 섬세하지 않을 만큼 가끔 찾아 뵙는 다거나 식사라도 같이 하며, 식구끼리의 단란함을 가끔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효」가 바람직 하다는 생각을 부모나 자식들 모두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주부>

요심이 (47) 김병오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을 몇배 더 잘 살 수 있다.

※성 바오로 서원 T.2~7398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간사 안지은, 전화 ③3498)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이삭화 (성경.성가.전진 포크송)
  - 매주 월요일 7시 반...메아리합창단
  - “ 월, 화, 목요일 7시 반...일본어 교실 영어교실 매주 월~목 7시
  - “ 목요일 8시.....“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 시민상담실 - 건강, 여성, 외국, 교육, 결혼, 신앙 등 매주 월~토 밤 8~9시

\*이주간의 성경\*

- |       |  |       |   |
|-------|--|-------|---|
| 10(월) | 독서(고린토후서 1:1-7, 성서P.404)<br>복음(마 태 오 5:1-12, 성서P.7)                              | 13(목) |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br>독서(이 사 61:1-3a)<br>복음(루 가 서 10:1-9, 성서P.154)     |
| 11(화) |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br>독서(사도행전 11:21b-26, 13:1-3, 성서P.292)<br>복음(마 태 오 10:7-13, 성서P.21) | 14(금) | 독서(고린토후서 4:7-15, 성서P.409)<br>복음(마 태 오 5:27-32, 성서P.9)               |
| 12(수) | 독서(고린토후서 3:4-11, 성서P.407)<br>복음(마 태 오 5:17-19, 성서P.8)                            | 15(토) | 성모 기념 자유<br>독서(고린토후서 5:14-21, 성서P.409)<br>복음(마 태 오 5:33-37, 성서P.10) |

☆집필도장청부 ※ 고급실크벽지☆

대동 페인트 상사  
대동 지업사

● 동문 네거리 (풍남동 1가 17)  
전화 ⑤5986  
임도민고(정원)

고급 선물용, 케익, 빵, 파자, 잡살떡  
◎교우들에게 특별 할인◎

이미 제과소

상업은행 옆 (②6589)

이미 예식장

남문 옆 (③3915)

김민주(가타리나)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최씨관집

◎ 교우들에게 특별요금 봉사 ◎

최병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⑥6691 교훈85번)

제 4 지구 6개 본당 소식

1. 전주 시내 합동 성년 행사 방법 변경

- ① 때 : 매주 금요일 ② 오후 7시30분 : 특별고백 (금주 고백 성사 집전 사제-서학동 김영일 신부)
- ③ 오후 8시 : 성체강복, 미사, 특별강론

※ 지금까지 오후 3-5시까지 고백성사를 주던 방법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각 본당 신부님들이 순번제로 고백을 듣습니다. 많은 교우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성년을 보다 뜻있게 지냅니다.

2. 노송동 성당 신축을 위한 기도와 특별 헌금 (다음 주일)

- ① 지금까지 여러 특지가들이 노송동 성당 신축을 위해서 보여주신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정성 부탁드립니다.
- ② 전주시내 신부 전체회의는 다음 주일을 노송동 성당 신축을 위한 기도와 특별헌금의 날로 정했습니다. 모든 교우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3. 제4지구 단합 체육대회 (오늘, 해성 중·고 교정, 2면 참조 바람)  
미사 (오전 9시, 해성학교 구내 순교자 현양탑에서)...김영태 신부 집전

4. 제4차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6월 10~13일, 가톨릭 센터)  
전주시내와 제5지구에서 참가하는 목상자들이 만나 알찬 목상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신부 인사 발령 (6월 6일자, 부임일 6월 22일까지)

김종택 부주교(덕진→교구청), 이대권 신부(경리→중앙), 안복진 신부(중앙→금산),  
법석규 신부(전동→사목국장겸센라관장), 김환철" (금산→전동), 오현택(창인동→고창),  
박진량" (센라관장→창인동), 김영신" (김제→관리국장), 김봉희" (고창→김제),  
박창신" (중앙보좌→순창), 정승현" (새신부→전동보좌), 박종근" (새신부→덕진),  
서석규" (새신부→중앙보좌).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안복진  
②3874 보좌 신부 박창신  
사도 회장 이복석

1. 제 4 지구 친선 체육대회 (구역회장님 : 웅원 및 선수 동원)

전교우의 참석과 응원 바람. 선수들은 9시까지 현지 집합.

2. 사도회 임시회의 (16일 구역회장 및 사도회 전임원 참석요)

박종근 부제님의 사제서품식 준비관계로 개최.

3. 박종근 (안드레아) 사제서품 (7월 3일 : 본당)

전 교우의 축하바라며 조당여부들 신부님께 연락 바람.

4. 전자울겐 특별 헌금 (일본에 주문 예정 : 많은 협조 바람)

2만원 : 오증원. 만원 : 장남수의 익명. 2천원 : 박남주  
천원 : 최동식. 기타 : 천 5백원. 누계 374,407원

※ 의인 특지가께서 익명으로 만원 회사. 감사합니다

5. 요리 감습 (10<월>-15<토>) : 장당)

시간 : 오전 10시반-12시. 장사 : 조원숙.

□ 지난 주일 봉헌금 466,281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제 4 지구 체육회 (많은 교우들의 참관 바람)

2. 성우회 월례회 (체육대회로 대체함)

3. 교우금을 완납합니다.

4. 성미운동을 정성껏 (성미 2말 누계 285말 7되)

5. 사제양성 후원 기금 조성에 힘씁시다.

□ 지난주일 봉헌금 13,94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제 4 지구 친선 체육대회 (오늘 해성학교)

선수, 임원은 물론 모든 교우들의 절대 성원, 참석 요망

2. 제 4 차 그리스도 목상회 (10-13일 : 많은 기도부탁)  
참석 : 본당 신부의 한형수(부회장) 조성희(사회부장) 조상열씨

3. 화. 수. 목요일 미사없음(금요일 아침 미사있음)

4. 노송동 성당 특별 헌금 (주일금의 성의껏 노력합니다)

□ 체육대회 특별봉헌금 (12,709원, 상관 : 2,1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10,628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조해형

1. 부녀회 월례회 (다음주일)

2. 예비신자 교리시간 (주일공식 미사후)

3. 신용조합 (체육대회로 인해 다음으로)

4. 노송동 성당 신축에 협조해 주신분, 감사합니다.

5천원 : 박종근 (중노 1가 : 스페와노)

□ 지난주 신축기금 5천원 누계 1,383,922원

지난주 성미 2말 누계 175말 5되

지난 주일 봉헌금 14,45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1. 4 지구 체육대회 (미사후 합동으로 참석)

2. 일반교리 (체육대회로 없음)

학생교리 (매주 토, 오후 4시)

3.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임 : 조합원 복권 1매씩 드림)

※ 단 불참석 시엔 대부분을 때 1할 공제됨.

4. 체육대회 경비 협력 (많은 봉헌금 바랍니다.)

5. 애령회 기금 조성 성미 정성껏 (적극 협조 요망)

☆ 축결혼 (13<목> 오전 10시)

신랑 김용근. 신부 문복순(아나다시아)

□ 애령회 성미 1말 4되 1홀 헌금 2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8,87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주일학교 일일교장 (김용옥<야고버>선생님)

2. 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신용조합 소식 (14<금>밤 8시 : 조합원 통장 지참)

4. 애령회 소식 (오늘 특별 헌금있음)

5. 제 4 지구 체육대회 (많은분들의 참석 요망)

6. 재정부 소식 (신입하신 금액을 속히 완납요망)

7.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미사후. 밤미사후 수요일 오후 3시. 밤미사후)

□ 지난 주일 봉헌금 41,075원, 감사합니다.